

‘APEC 연계’ 글로벌 기업 투자신고 12.1억 달러 역대최대

국가IR ‘인베스트코리아 서밋’

산업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글로벌 7개사, 90억 달러 투자계획
현장서 6.6억 달러 투자신고 하고
추가로 7개사서 5.5억 달러 투자

국가 차원의 대표 IR(Investor Relations) 행사인 ‘인베스트코리아 서밋(Invest Korea Summit, IKS)’이 APEC CEO 서밋과 연계해 역대 최대 규모로 30일 개막했다.

전날 APEC CEO 서밋에서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글로벌 7개사의 90억달러 투자계획과 6억6000만달러 투자신고에 이어 이날 도코 일렉트론 등 7개사가 5억5000만달러 신규 투자를 신고했다.

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30일~31일까지 이틀간 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IKS 2025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9일 경북 경주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에서 특별연설을 하기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AI 혁신 파트너, KOREA’와 ‘균형 발전’을 핵심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외국인투자자·글로벌 투자자·외국상공회의소·국내의 기업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IKS 투자신고식에서는 5억 5000만 달러 규모 신규 투자신고가 이

어졌다. 참여 기업은 ▲도쿄일렉트론(일본)·미쓰이화학(일본)(반도체 장비·소재) ▲오션원즈(스페인)(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발레오(프랑스)(자율주행 시스템 연구소) ▲BASF(독일)(여수 스페셜티 화학제품 생산시설) ▲해피톡(대만)(AI 기반 게임 R&D센터) ▲

아그라나(오스트리아)(K-푸드 생산클러스터) 등 7개사다.

앞서 전날 경주에서 열린 ‘글로벌 기업 투자 파트너십’ 행사에서는 AWS, 르노, 앰코테크놀로지, 코닝, 에어리퀴드, 지멘스 헬시니어스, 유미코아 등 7개 글로벌 기업이 향후 5년간 90억 달러 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6억6000만 달러는 현장에서 즉시 투자 신고가 이뤄졌다.

이로써 APEC 계기 투자신고 누적액은 12억1000만 달러, 역대 IKS 사상 최대 규모로 집계됐다.

또 램리서치코리아테크놀로지, HP 프린팅코리아, 코닝정밀소재 등 3개사가 외투기업 R&D센터로 새롭게 지정됐다. 반도체·프린팅·첨단소재 분야의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연구거점을 확장함으로써 기술협력과 공급망 안정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메인 컨퍼런스에서는 김유원 네이버

클라우드 대표와 백준호 퓨리오사AI CEO가 각각 ‘소버린 AI 생태계’와 ‘차세대 AI 컴퓨팅 혁신’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하며, 한국이 글로벌 AI 협력의 허브로 부상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패널토의에는 첨단산업 4대 축으로 불리는 ▲자본흐름(UNCTAD) ▲하드웨어(ASM) ▲지속가능 전력(RWE) ▲퓨처 컴퓨팅(Pasqal)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한국의 산업 경쟁력, 투자환경, 공급망 전략에 기반한 글로벌 협업 방안을 제시했다.

6개 지자체가 참여한 지역 투자환경 IRII 별도로 마련됐다. 포항·울산·경주·수원 등 주요 지역은 배터리·자동차·소프트웨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현장 IR을 진행했다. 또 해외 벤처캐피탈(VC), 글로벌 CVC, 엑셀러레이터 등이 참여한 스타트업 피칭·상담회와 재무적 투자 포럼을 통해 핀테크·헬스테크·ICT 분야 혁신기업의 해외 자본 유치도 지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韓·美 불확실성 해소로 환율 1426.5원에 하락 마감

현금투자·조선업 협력 2개 방식
대미투자 3500억 달러 규모 확정

한미 무역협상 타결 소식에 달러당 1440원을 넘보던 환율이 1420원대 중반까지 하락했다. 양국 간에 견해차가 뚜렷했던 대(對)미 투자의 형태가 확정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된 영향이다. 같은 날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소식이 환율 하락에 일조했다.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이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중장기 환율 안정을 위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30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426.5원에 주간 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를 마쳤다. 전일 주간 거래 증가보다 5.2원(0.36%) 내렸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23일 1439.6원까지 상승해 1440원을 목전에 뒀는데, 일주일 만에 10원 넘게 하락했다.

이날 환율은 지난 29일 오후 개최한 한·미 정상회담 결과 양국이 지난 7월 31일 관세 협상 이후 3달 만에 세부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불확실성 해소에 힘입어 하락(원화 가치 상승)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규모를 확정했다. 대미 투자는 2000억 달러의 현금 투자와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업 협력 방식으로 구성되며, 현금 투자분의 연간 투자액은 200억 달러로 설정됐다. 지난 8월 초부터 25% 수준으로 부과됐던 한국산 물품에 대한 관세도 15% 수준으로 복귀한다.

/안승진 기자 asj1231@

SK텔레콤, 통신 CIC·AI CIC 조직재편

≫ 1면 ‘SK그룹 사장단 인사·…’서 계속

기존 유영상 사장은 SK수펙스추구협의회 AI위원회 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겨 그룹 차원의 AI 확산 전략을 총괄한다. SK텔레콤은 통신 CIC(사내회사)와 AI CIC로 조직을 재편하고, 통신 CIC장에는 한명진 SK스퀘어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SK온은 소재·제조 분야 전문가인 이용욱 SK실트론 대표이사를 사장으로 임명했다. 이 사장은 이석희 사장과 함께 배터리 산업의 체질 개선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주력한다.

SKC는 자회사 SK엔펄스를 이끌던 김중우 대표를 신임 사장으로 선임했다. 김 사장은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SK에코플랜트는 장동현 부회장과

호흡을 맞출 사장으로 김영식 SK하이닉스 양산총괄을 선임했다. 반도체 제조와 생산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하이닉스 DNA’를 접목해 성장 사업의 실행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SK(株) 머티리얼즈 CIC를 이끌고 있는 송창록 대표는 사장으로 승진했다. 송 사장은 첨단 소재 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그룹의 핵심 미래 사업 중 하나인 소재 분야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SK이노베이션 E&S는 이종수 LNG 사업본부장을 사장으로 임명해 에너지 솔루션 사업의 신성장을 모색을, SK스퀘어는 글로벌 투자 전문성을 갖춘 김정규 SK(株) 비서실장을 신임 사장으로, SK AX는 클라우드 및 ITS(지능형 교통시스템) 컨설팅 경험이 풍부한 김완중 CCO(최고고객책임자)를 사장으로 승진시켰다.

/이승용 기자 lsy2665@

나무증권, 투자에 실-제로 도움되게

수수료 제로고침

신규 고객 및 조건 충족 시 (~12.31)

해외투자 새로그침

나무증권에서 경험하기

미국 주식 거래 / 환전
수수료 제로

\$30 투자 지원금
시작 부담 제로

최대 6만원 캐시백
시드 걱정 제로

AI투자 솔루션
투자 고민 제로

[이벤트 유의 사항] 수수료 제로그침 이벤트 기간: ~25년 12월 31일. 이벤트 대상: 당사 최초 신규 고객 및 기존 고객(조건 충족 시,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고). 수수료 혜택 기간: 신규 고객은 계좌 개설 일로부터 12개월, 기존 고객은 26.02.28까지 [투자 유의 사항] 이 금융상품(주식)은 예금지보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해외 주식 매매 시 수수료 및 제비용 발생하며,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미국주식 매매 시 수수료 0.25% (온라인 기준) 및 제비용 (미국주식 매도 시 SEC Fee(0.00278%)) (예시) 중국주식 매매 시 수수료 0.3%(선강릉/무강릉 동일, 온라인 기준) 및 제비용(중국 선강릉/무강릉 기준, 매수 시 Handling Fee 0.00341%, Securities Management Fee 0.002%, Transfer Fee 0.003%, 매도 시 Stamp Fee(인지세) 0.05%, 인/오프라인 동일) 투자자는 금융투자 상품에 대하여 증권사로부터 중보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등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식은 자산 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 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5-01343호(2025-04-02~2026-04-02)